대포폰 1만 2천대로 소액결제 20억 '꿀꺽'

전남경찰, 국내 최대규모 거래 일당 20명 검거

총 100억대 피해 … '범죄 악용' 규제 시급

대출을 미끼로 신용불량자 등의 휴대전화를 1만2천여대나 수집한 뒤 이를 속칭 '대포폰'으로 만들어 수십억원대 소액결제 비용을 빼돌린 일당 2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대포폰은 전화 명의자와 통신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불법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에 고스란히 악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최대규모 '대포폰' 양산=전남지방경찰청은 8일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모은 뒤 '대포폰'으로 판매한 문모(36)씨 등 수집·판매업자 4명과 김모(34)씨 등 중개상 3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 소액결제 비용을 빼돌린 속칭 '대포폰 깡업자' 한모(34)씨 등 13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문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전화 대출'을 통해 신불자 A(35)씨 등 2천700여명으로부터 1만2천여대의 휴대전화를 수집한 뒤 중개상과 '깡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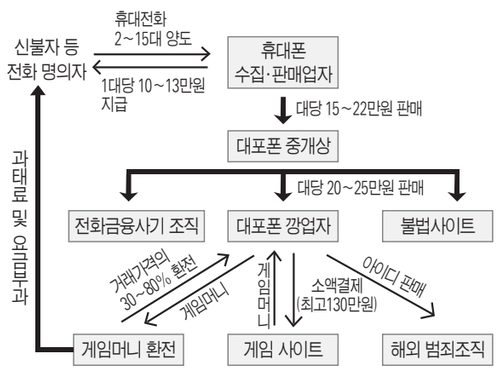
'깡업자'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 및 아이템, 영화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다.

◇철저한 업무분담…정지된 휴대전화는 해외 판매='대포폰' 일당은 치밀한 사전 모의로 업무를 분담했으며, 요금 체납으로 '용도폐기'된 휴대폰은 해외로 팔아넘기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

문씨 등 '대포폰' 판매업자는 신불자 등에게 대당 10만~12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인당 최대 15대의 전화를 넘겨받은 뒤 15만~25만원을 받고 중개상 등에게 되팔았다.

중개상들은 이 전화를 대당 2만~5만원을 남기고 '깡업자'에게 넘겼으며, '깡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산 뒤 게임머니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대포폰 유통 개요도



또 이들은 '대포폰'의 소액결제 한도를 높이거나 요금고지서를 받는 장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2~3개월간 대당 최고 120만원을 결제하고, 정지된 기기는 중국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이통사 등 100억원대 피해"='대포폰'은 개통 명의자와 이통사 등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제2, 3의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통신요금까지 합해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회사별로 3~4대까지 가입을 받아주고 있으며 휴대전화 1대로는 100만원 안팎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포폰' 명의 대여자는 최고 800만원의 통신요금이 청구됐고, 명의대여자 가운데 5명은 스팸문자 발송자로 전파관리소에 적발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더구나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불법사이트, 유괴나 납치 등 강력범죄 등 각종 범죄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법적 규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 6주기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에 섰던 '광주의 어머니' 고(故) 조아라 광주 YWCA 명예회장 6주기 추모식이 조아라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8일 광주 YWCA 강당에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성당 마당서 40대女 피살

광주 운남동, 괴한 1명 범행 후 승용차 도주

8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모 성당 안마당에서 장성군 모 병원 조리사 염모(여·48)씨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목격자 최모(27)씨에 따르면 이 괴한은 성당 앞길에 티코 차량을 세워놓고 염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흉기로 찔린 뒤 그자리에서 사망했다. 염씨는 이 성당 신도로, 딸(21)과 함께 생활해왔다.

경찰은 범행현장 감식을 통해 용의자가 타고 간 차량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4월20일 북구 용봉동 S교회 인근 앞길에서 발생한 여의사 피살사건과의 수법이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북구의원 수억 원 빚 고민 자살

8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사는 북구의회 박모(53) 의원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딸(2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경찰에서 "아침에 아버지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더니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채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왔으며 최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의원의 몸에 다른 외상이 없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밤 박 의원과 술을 함께 마신 남성이 "수억 원의 빚 때문에 괴롭다고 말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 의원이 채무 부담 등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교량경관 입찰 문제 없다

광주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 입찰과 관련해 0.67점 차로 탈락한 2순위 업체가 '평가 시연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광주일보 1일자 7면〉.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8일 광주천 교량경관 3차 개선사업 협상 적격자 2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협상적격 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는 제안서 평가 동영상 시연에서 1순위 업체에게는 자체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토록 한 반면 타 업체는 발주처 노트북을 사용해 컴퓨터 용량에 따라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됐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비리 의혹 3명 소환

검찰, 전시장 공사 특혜

광주비엔날레 재단 전 직원 A씨가 특정업체를 전시장 설치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참고인 3명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은 8일 "지난해 9월 열렸던 제7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설치공사와 관련, 특혜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설치 업체 직원 등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상대로 A씨의 금품 수수 여부, 지난해 10월 A씨가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면서 설치 업체로부터 체재비 등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불러 전시장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사비 8억5천만원 규모의 비엔날레 전시장 설치 업체 선정을 담당했던 A씨는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지난 2월 사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학병원서 상습 소매치기 30대女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8일 대학병원에서 사람이 많이 몰린 틈을 타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김모(여·3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동구 C대학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 병원비 123만원 등이 든 최모(여·44)씨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는 등 5회에 걸쳐 460여 만 원을 훔친 혐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구 부구청장 직위해제

광주시는 8일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구 부구청장 A씨(57)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 남구청은 지난 7일자로 A씨를 광주시로 전출시켰으며, 시는 9일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350억 자산가 무남독녀 배필 공모

쌍나팔

○…35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70대 노부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무남독녀의 배필을 공개적으로 찾아 나서 눈길.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350억원대 자산가인 A씨가 외동딸 B(37)씨의 배우자를 찾아줄 것을 의뢰해 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시작.

○…B씨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기업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A씨는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해 인격과 품성이 바르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활달하고 기백있는 37~42세 남성'을 사위 후보자의 조건으로 제시.

○…선우는 다음달 8일까지 사윗감 후보를 모집한 뒤 서류심사로 1차 대상자를 선정, A씨 부부와 의논해 만남 상대를 결정할 계획. /연합뉴스